

## 제2차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 개최 결과

### 1. 개요

- 일시: 2021. 4. 28.(수) 16:30~18:00
- 장소: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부산지역 금융산업 전문가, 부산광역시,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등
- 주요내용
  - 부산지역 대표 브랜드 인력양성 분야
  -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시 애로사항
  - 부산지역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과제
  - 부산지역 브랜드 훈련과정의 훈련 공급 방안 등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직위	비고
1	금융투자협회 동남권 교육센터	박○○	부장	금융
2	부산국제금융연수원	맹○○	실장	
3	경성대학교	박○○	교수	HRD 전문가
4	부산외국어대학교	권○○	교수	
5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	선임위원	
6	부산광역시	김○○	팀장	유관기관
7	부산광역시	최○○	주무관	
8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하○○	책임연구관	주관기관

## 2. 조사결과

### ○ 주력 인력양성 분야 및 인력양성 필요 분야

- 부산에 금융 관련 교육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 수요가 있더라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 또는 마케팅 중심
  - 금융 관련 핵심 기능 및 교육은 현재 서울에 집중
-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 관련 교육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재직자 교육 중심
- 부산에서 금융 관련 훈련을 브랜드화할 경우 가장 적합한 분야는 선박금융과 파생금융
- PB(Private Banking,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IB(Investment Bank), 대체투자, FICC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M&A 실무 및 운용 인력양성 필요

-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어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후 ‘금융 전문기관을 부산에 설립하여 금융 전문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4개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1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씩 운영하는 기관은 금융투자협회, 보험연수원, 여신협회, 금융연수원입니다. 올해는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해입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의 주요 역할은 부산에서 금융 전문교육을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행 관련 교육은 금융연수원, 보험 관련 교육은 보험연수원, 증권, 투자 관련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험이든, 금융이든 부산에 금융 관련 교육 수요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적으니까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당시부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교육 수요가 있어야 교육을 개설할 수 있고, 교육을 수강해야 인력양성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을 예를 들면, 보험 관련 주요 기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 부산영남본부가 있는데 주로 마케팅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대부분이 영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교육입니다. 보험연수원의 서울 본원에서는 보험 전문 교육을 진행 하지만 부산에서 동일 과정을 개설하여도 수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직자 교육을 주로 하는데 영업인력들, 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영업인력이 주 교육대상입니다. 이 인력들은 40만 명 정도로 규모가 큰데, 법정 의무교육으로 등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교육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교육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산에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요 부족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 취지에 적합하게 중심지 기능을 갖고, 인력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인력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파생금융이나 해양·선박 관련 금융 교육은 금융연수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의 대부분은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로 전문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실업자 교육보다는 재직자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부산은 이미 2009년부터 선박보험, 해양, 선박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산은 금융 관련 교육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역할, 금융투자회사나 회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브랜드화한다면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선박과 파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이 금융도시로 선정된 것이 처음에 선물 거래소가 먼저 들어왔고, 2009년에 한국거래소와 통합하면서 금융중심지로 되었는데, 그 당시 부산에서 파생 금융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산지역 투자자, 지역 기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기관이 꽤 있습니다. BNK금융투자나 증권사의 경우 해외 투자증권이나 파생금융의 기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투자(부동산, 인프라 등)나 IB\*(M&A(인수합병), IPO(기업공개) 등)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회원사인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업 기관이나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등의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 활용 등 자본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M(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확대에 따른 개인·자산가·법인 전담 PB(Private Banking,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국내외 주식 및 대체 투자 관련 운용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FICC\*\*\* 및 M&A(Mergers&Acquisitions, 기업 인수합병) 실무 및 운용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IB)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장기 자금 조달, 기업의 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중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 (엑셀레이터) 창업기획자,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 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벤처창업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3~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집행함과 동시에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창업 제반 행정서비스, 법률 서비스, 투자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설립부터 업무공간 제공, 멘토링, 행정 및 법률, 경영 서비스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FICC) 채권, 외환, 상품을 뜻하는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의 약어, 외환과 금리, 원자재 등과 관련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개발, 운용, 마케팅하는 곳

#### ○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시 애로사항

- 금융 관련 인증 기술 등이 발달하고 있으나, 교육과 연계성은 현재 낮은 편
- 보험이나 금융업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창출, 디지털 마케팅,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기술을 산업과 접목하고 있으나, 기술 접목 방법 및 활용 측면에서 여전히 초보 단계로 관련 인력양성이 필요

-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은행연합회, 은행, 금융투자의 경우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인증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공동인증을 대체하는 인증서를 했고, 블록체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기술이나 비즈니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교육은 4차산업혁명 관련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 금융투자개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4차산업혁명, 디지털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도 시작 단계로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보 단계로 이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빅데이터로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나 디지털 마케팅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솔루션이 적용되는지,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할 것인지 등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활용하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 서비스 제공 등이고, 보험에서는 헬스케어를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이런 분야의 교육을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부산지역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과제

- 부산에 금융 관련 교육은 부산금융전문대학원이나 부산국제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수요는 다소 부족
- 부산에 금융 기관이 이전되었으나 인력 채용 수요 증가는 미미한 수준
  -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부산금융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과 선박금융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박금융이 파생금융 쪽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지만 요즘 금융투자상품이 고도화되어 해상운임지수 등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파생금융에 원자제품, 선박펀드, 항공펀드, 바이오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꼭 부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금융연수원에 IB업무역량강화나 M&A 과정이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금융대학원이나 금융 관련 교육이 있는데 교육 수요가 많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왔지만 금융 쪽 인력 채용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인력 채용 규모는 제조업이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부산지역 브랜드 훈련과정 및 훈련 공급 방안

-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 디지털이나 바이오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만 융합하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인력은 부족, 융합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양성 필요
  - 금융 관련 전문지식 하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필요
- 금융산업 또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의 IT 인력의 수요가 많으며, 금융 보안, 앱 개발 및 시스템 연결, 투자 플랫폼 개발 및 운용 등의 IT 인력양성 필요
  - 현재 금융에서 IT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T 기술 접목을 통한 금융시장 선점 및 경쟁 심화
  - 다만, 금융 기업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방식이 다르고,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어 범용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부산의 특화산업을 선정 후 해당 산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부산의 브랜드 훈련과정으로 개발
  - 부산의 특화산업은 부산지역 내의 성장 산업과 엑셀레이터 분야를 매칭하여 선정
- 국내에서 하지 않고 있지만 개발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부산에서 공급
  - 산업 분야를 세분화하여 틈새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과정 수료 후 인증제를 도입
- 금융 소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컨설턴트 인력양성
  - 부산에서 교육받고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 보험, 자산관리 등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 파악 및 헬스케어 등과의 접목이 필요하며, 디지털과도 접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금융 외 산업에서는 디지털(AI 및 SW) 및 그린(기후변화, 그린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 BBIG(Bio, Battery, Internet, Game) 신성장 산업 특화 인력양성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스톱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양성
  - 현재 실질적으로 신기술과 접목하고 있는 부분이 헬스케어로 앱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명은 앱을 통해 고객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건강상태가 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마케팅과 연계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구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부족합니다.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한화생명 가입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의학 기술을 잘 접목하여 현장에서 상품화하려면, 융합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성 높은 강사가 교육하여 부산에서 배출한다면 부산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를 접목하려는 기업들은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 기술인력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하나의 통합된 인력양성체계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은 기술과 분야를 융합해서 기업에 접목시키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오나 디지털 등 분야별 전문가는 있지만 기술을 융합하여 코디네이팅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험이나 금융투자나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고 싶은데 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을 잘 알고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접목 후 코디네이팅하는 방식의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AI 쪽은 현재 많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도 채용하고 싶어 하는 인력들입니다. 현재 국비 지원이든 민간 기관이든 앞서 말씀드린 분야의 훈련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인력 수요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핀테크화되면서

보안이 중요해졌는데, 금융투자, 증권가의 경우 IT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브랜드 훈련과정을 채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봤을 때 회원사로 증권사, 금융사, 선물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찾는 인력은 IT 인력입니다. 앱 개발과 시스템 연결, 데이터 분석, 디지털 혁신을 통한 시 기반 투자 플랫폼(개인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용관리 등) 개발 및 운용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직원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선정되어 플랫폼을 진화시켜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기업체의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고, 금융 기관별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교육 후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프로그램 개발 관련 훈련과정은 전국에 많이 있지만 부산에 특화된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려고 공부하기보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부산의 특화업종, 산업을 선정한 후에 여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부산의 청년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에는 소매업이 가장 많아, 음식, 서비스, 판매직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이렇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업종이나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나 금융, ICT, 제조업,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과 부산지역의 엑셀레이터의 투자 분야를 매칭하여 특화산업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브랜드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부산은 해양에 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원래 갖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여건과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사후적으로 부산에서 하지 않은 것을 브랜드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은 교육 영역,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어느 지역이라도 먼저 개발해야 할 부분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은 크게 4개 부문을 나눌 수 있는데, 다릅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을 금융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부르지만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케팅 방식이 다르고 고객 접근 방식 등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서 고민하고 이슈가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마케팅이나 헬스케어인데 고질적인 문제가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로, 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도 그렇고 마케팅의 특성도 그렇고 보험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푸시 마케팅을 하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은행이나 증권 쪽은 소비자가 직접 창구에 가야 하지만 보험은 중간 매개체(보험 판매자)가 수요를 창출해야만 판매가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자가 40만 명 정도 있는데 필요한 역량을 두 가지로 뽑는다면 판매 능력과 윤리성입니다. 판매 능력은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성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리성을 향상시켜주지 않으면 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게 나옵니다. 보험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의 일선에 있는 조직에서 윤리성 향상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고객 지향성을 높이는 교육, 윤리성 교육을 하면서 판매 기술 향상 교육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복합적인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수익 및 인식도가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전국의 보험 관련 인력들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에도 보험 판매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방향성이 올바르고 보험 판매인의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훈련과정으로 고려해볼 만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험 판매인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증할 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믿을만 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부산이 선도한다면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 회사는 약관 교육은 하지 않고 판매 기술 위주로 교육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보험인데 보험상품의 내용은 약관입니다. 약관을 보면 하면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 ICM(Insurance Consulting Master, 보험컨설팅마스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보험 약관 교육을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 후에는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받은 후 보험 판매를 하는데 판매할 때 꼭 해야 하는 일과 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단순히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대외적으로 인증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를 만들어 주는 교육을 하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금융과 무관하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생각해보면, ICT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만 특화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판 뉴딜에서도 발표했듯이 AI나 SW의 디지털 인력과 기후 변화 및 그린 엔지니어링 등의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BIG(Bio, Battery, Internet, Game)를 전망 있는 산업으로 보고 산업과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추천제도를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기계·전기 플랜트산업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국제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내 거주 외국 금융인력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며, 이 때 상담 등의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수를 평가할 때 생활편의나 언어가 중요한데, 외국 금융인력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건의해봅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부산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여 부산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부산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해야만 브랜드 훈련과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직접 대면해야 가능한 분야를 찾아야 하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해줄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를 생각해봤을 때 컨설팅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하여 소외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잘못된 투자를 방지하거나 잘못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러한 컨설턴트 인력양성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컨설팅이 수입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금융컨설턴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펀드 매니저까지는 아니지만 깊고 다양한 방면으로 필요합니다. 컨설턴트가 배출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컨설팅으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면 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보험 업체에서 자체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으나, 공적인 차원에서 금융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경우는 없어 부산시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시민을 위한 컨설턴트를 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컨설팅을 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금융 쪽에서 보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전반적인 라이프 컨설팅을 하면서 자산관리 컨설팅과 위험관리 컨설팅(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만 알아서는 안 되고 관련 투자 상품을 다 알아야 합니다. 금융권에 자격증이 많은데, 특정 회사에 소속될 경우 기업의 이익에 종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보험 판매로 수입을 창출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컨설팅한다는 보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헬스케어 등 디지털 부문도 접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도 수익을 얻는 컨설팅 영역을 깊이 있고 활성화하는 도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금융 컨설팅은 부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인력양성 부분도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IT와 금융 관계를 보면 금융 기업들에서 IT 인력은 외주를 많이 주고, 채용도 합니다. 채용 시장을 보면 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IT 인력 채용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 체인은 보안과 분산원장\*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TF를 구성, 대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인증을 만들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IT와 금융에서 IT가 주가 될 수 있어 핀테크를 테크핀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동남권교육센터)

\* (분산원장) 공유원장 또는 분산원장기술, 복제, 공유 또는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 (합의를 통한 공유 분산데이터베이스), 중앙 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각 노드(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계속 동기화하는 기술

끝.